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 캠퍼스의 김종회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작품은

전상국 작가의 중편

‘아베의 가족’입니다.

'아베' 아베가 뭘까요?

사람 이름이에요.

'아베'라는 이름은

여러 가지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가족의 일원인데

그러니까 기형아입니다.

정신적인 수준도 낮고 불구에 해당하는

왜 이 작가가 이와 같은

정신적 또는 육체적 불구의 인물을

소설의 제목으로 내세웠을까요?

남북분단, 전쟁으로 인해서 파생된

그 이후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불구의 요소가

너무도 적나라하고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상국이란 작가는
분단 문제를 작품으로 써서

일약 스타덤에 오른 작가죠.

전상국의 작품 세계는
대체로 분단 문제와

그다음에 교육 현장의 문제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분단 문제는 동시대의
다른 작가들과 마찬가지로

어린 시절에 보았던
전쟁의 상처에 대한 것이고

교단의 체험은
대학을 졸업한 이후 내내 교사로서

강원도 홍천에서
또 10년 후에는 서울에서

교사로서 생활했던 그 체험을 통해서
교실에서 보는 것이

곧 사회의 축소판으로서의
인생의 의미라는 생각

그것을 소설로 썼던 것이죠.

어린 시절에 무언가를 체험한다는 것

이것은 어른이 되어서
체험한 것보다 훨씬 더

오래 효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는 그다지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정신이 혼미해졌을 때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어린 시절에 겪었던 것

어린 시절에 만났던 사람들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이 시기가 한 사람의 일생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으로부터 한 세대가 경과한다는 것

보통 한 세대라고 하면
동양 문화권에서는 25~30년

서양 문화권에서는
30년을 두고 말합니다.

원 제너레이션, 한 세대

그런데 한 세대가 경과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 할까요?

전쟁 이후에 직접적으로
작품 활동을 한 사람들은

그 전후 현실을 반영하기에 급했습니다.

그러나 한 세대가 경과했다는 것은

그 역사, 파행의 역사가 던져 준
의미를 보다 객관화시켜서

시간적 간격이 확보된 만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이런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세대 이후의
한국 전후 전쟁 상황이라는 것

이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작가가
바로 전상국입니다.

이 작가는 1963년에
'동행'이라는 단편소설로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당선했습니다.

그런데 첫 작품인데도
‘동행’ 속에는 앞으로 전개될

전상국의 작품 세계가
거의 압축되어서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듬치 고개라는

눈에 덮여서 잘 갈 수도 없는
그 길을 두 사람이 함께 가요.

한 사람은 객지를 떠돌던 범죄자입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가서
아버지 무덤 앞에서

자살하려는 생각으로 가고 있죠.

또 한 사람은 형사입니다.

형사인데 이 두 사람이 함께
산을 넘어가면서 얘기를 나누다가

이 형사가 범죄자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의 상황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헤어질 무렵에
이를테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피던 담뱃갑을 줍니다.

거기에 담배가 여러 개비
남아있는 것이니까

꼭 이 담배는 하루에
한 개비씩만 피라고.

생명의 연장을 권유하는 거죠.
체포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렇게 해서 이를테면 이 범죄자가
6 · 25라는 상황을 지나오면서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정황을

형사가 이해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그 시대의 아픔을
우리 민족의 포괄적인 눈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아베의 가족' 이란 작품은

1979년도 작품이고 한 해 후에
'여름의 껍질' 이라고 하는 중편 소설

'아베의 가족' '여름의 껍질'
둘 다 중편소설입니다만

6 · 25 문제를 다룬 짧은 소설로서는
기가 막히게 좋은 작품들이에요.

이런 작품들을 생산하고

말하자면 과거의 역사와 현실이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가

그 과거 역사 속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어떻게 서로 맞물려있는가

또 이것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어떤 삶의 눈을 가져야 할 것인가

이것을 소설을 통해서 추구한 것이
전상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가는 1940년
강원도 홍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홍천 중학교를 거치면서
소설을 읽고

문학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게 되죠.

1963년에 작가로서 등단한 이래
한동안 작품을 쓰지 않았습니다.

한 10년간 강원도 홍천에서
교사 생활을 하면서

이를테면 철렵도 하고

그 지역에서 친구들과 쉬기도 하면서

소설을 쓰지 않았습니다.

작가는 나중에 이 10년의 시기를
소비의 세월 10년이라고 적었는데

그로부터 세월이 한참 흐른 다음에는

이 10년을 바꾸어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준엄한 수업 기간 10년.

자, 여러분 소비의 세월과

준엄한 수업 기간이란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처음에 작가로서 등단한 다음에

10년간 작품을 쓰지 않았던
시기를 생각하면서

그 시절을 헛되게 보낸 것
아니었느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인데

그러나 계속해서 작품을 쓰고
작가로서의 이름을 얻은 다음에 보니까

그때 그렇게 보낸 10년이
삶의 한 국면에 있어서

결코 버린, 버려진 시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체험들이
결국은 나중에

다른 작품들 속에
이야기의 모양으로

되살아나는 것을 보고서

그 또한 수업 기간,
준엄한 수업 기간이었다

작가는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삶의 여러 가지 양상을
소설로 쓰는 과정에서

자기 내면에 대한 통찰,
의식의 세계 보다는

경험적인 현실의 무게에

더 큰 관심을 부여하고 있었던
작가가 전상국이고

그러니까 그의 소설은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과거의 역사적 삶이
현실에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를

지속적으로 탐구해 가는
소설형식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6 · 25라는 것도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닌 것이죠.

여전히 문제가 있는 상태로 남아있고

극악한 뿌리를 현실적인 삶 속에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베의 가족' 에서는 그 전쟁을 겪은
한 가족의 모습을 통해서

그 전쟁에서 겪었던
그와 같은 여러 체험 때문에

상처, 피해 때문에 현실의 생활이
화해롭지 못하고

평화롭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세대를 넘어서서
남아있는 민족사의 비극

가족사로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 가족사의 비극

민족사의 비극이란 것이
어떤 양상을 띠고 있는가.

또 이것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소설을 통해서 보여주겠다는 것이
이 작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좀 전에 교사 체험,
교사 생활 말씀을 드렸는데

'우상의 눈물'
또는 '돼지 새끼들의 울음' 같은

이런 것들이 매우 잘 쓰인 작품들인데
영화로도 만들어지곤 했죠.

그런데 교육 현장의 문제가
단순히 교실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현상의 축소판이다.
이것을 제유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부분을 보여줌으로써
전체를 짐작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이 작가는
작은 것으로써 큰 것을

그러니까 교실에서 사회를

또 가족사를 통해서 민족사를

작은 것을 통해서

전체를 보여주는 데

특별한 능력을 가졌던
작가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아베의 가족’은 그 속에
남편과 아내가 등장하는데

남편은 전쟁 시기에 가해자입니다.

부대의 낙오자가 되어서
어떤 집에 들어갔다가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아니지만 사살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해의 악몽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아내는 이를테면
전쟁 중에 남편을 잃고

그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살던 집에서
외국인 병사들에게 겁간을 당합니다.

임신 중이었던 아내,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아이가 아베인데

술까재처럼 형태가 제대로 잡히지 않은
그런 아이를 낳게 되는 것이죠.

원래부터 그런 아이를
잉태했다는 뜻이 아니라

임신 중에 그와 같은 일을
당함으로써 태어난 아이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전쟁이란 것이

특히 남북 간의 동족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외국 군인들이 개재되고

외세가 이 땅에서
나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말하자면 아베와 같은 아이의 출산

그러니까 벗어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비극적인 역사적 삶

이것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과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베의 어머니, 아내죠.

그런데 아버지는 재혼한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아베의
친아버지는 아닌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는
'진호'라는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사람들이 한국에 살 때는
어머니가 억척같이 가족을 돌봅니다.

아버지는 무능력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 가족이
미국에 이민을 가게 돼요.

이민 가서는 어머니는 빈 쌀자루처럼
휘주근하게 늘어져버리는데

아버지는 거기에서
펄펄 날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해의 공간을 떠난 것이죠.

어머니는 여기에서 피해자로서
인고의 세월, 인고의 삶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자기 의지를

미국이란 공간에서는
상실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진호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아들이

G · I로 지원해서 한국에 나옵니다.

한국에 나와서 자기의,
말하자면 형이죠.

형인데 아버지가 다른 형이죠.

형의 행방을 찾아가는

행방을 찾아가는데
토미라는 미국 병사와 함께

그 얘기를 나누면서
어머니의 일기책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미가 물어봅니다.
"그거 무슨 책이냐?"

진호가 아주 의미심장하게 말합니다.
역사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사가 곧
민족의 역사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이고 강력한 매개체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름의 껍질' 이라는 중편
또한 마찬가지로

거기에 등장하는 남편은

전쟁 중에 가해자였고

또 거기에 등장하는 아내는

전쟁 중에 피해자였습니다.

이 경우는 남편이 아내가 피해를 당한

그 현장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아내에게 전화합니다.

이 두 사람은 성적으로도 전혀

소통이 안 되는 사이인데

마지막에 작가는 매우 감동적으로

이와 같은 것들이 한꺼번에 풀리는

상황을 암시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전상국은

‘아베의 가족’이나 ‘여름의 껍질’에서

공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과거의 상처를 확인하고

그 상처와 정면으로 마주 설 때

가해자이든 피해자이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감정의 실마리, 이것을 찾아낼 수 있다.

전상국의 화해의 방안이란 것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과거의 상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우 정동적이고 감성적인
화해에 도달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화해의 방식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하는

문제 제기가 없진 않겠지만

그러나 마치 윤흥길이 하나의 의지로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했던 것처럼

서로 화해하고 용서함으로써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분단문학의 주요한 한 작가의 시각,
한 작가의 소설적 논리

그것이 이 작품 속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